

---

第97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交通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7年9月5日(金) 午後2時

場所 交通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交通放送本部所管當面懸案報告의件

---

審査된案件

1. 交通放送本部所管當面懸案報告의件 ... 1面

---

(14時 50分 開議)

○委員長 金永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4차 交通委員會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

1. 交通放送本部所管當面懸案報告의件

○委員長 金永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交通放送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도 그 동안에 신청사 이전이랄까 또 그 후 자세를 가다듬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하한기를 맞아서 좀 해이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더운 기간도 이제 지났습니다. 자칫 그러한 정신이 계속되게 되면 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다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복무에 충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交通放送本部 소관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먼저 交通放送本部長 나오셔서 당면 현안보고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謙洙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永春; 네, 朴謙洙 委員님 보고하시기 전에 무슨,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朴謙洙 委員;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얻기는 얻었는데 이것이 지금 신상발언인지 의사진행발언인지 저도 성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本部長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좋겠는가를 분명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회기가 끝나고 나서 매회 때마다 교통방송의 방송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통방송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것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해서 지난번 趙 淳 市長 간담회 때 그 내용을 꺼냈습니다. 本部長님 알고 계시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알고 있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리고 市長室로부터 답변이 왔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것이 저한테 분명히 공식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제가 자료를 우리 總務局長한테 제출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市議會에서 2월 내지 3월 정도 趙 淳 市長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이 9월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가 8월입니다. 그래서 5.6개월 동안이나 市長과 얘기가 왜 진척이 안 되는가, 지금 교통방송에서 취재하는 기자가 너무 없어서 방송의 질이 사실상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추진을 하십시오 하고 우리 常任委員會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알고 있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總務局長께 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總務局長 하시는 말씀이 자료 줄 수 없습니다, 왜 자료 못 줍니까, 비밀이라 못 줍니다, 왜 비밀입니까? 이것이 交通放送本部에서 서울시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비밀입니까? 좌우지간 못 줍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本部長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本部長한테 연락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本部長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다고. 本部長님 휴가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市議會 출발하고 나서 市議員을 할 필요가 없구나, 市議員의 기본적인 것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市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정이 원활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집행부에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절대로 못 줍니다, 당신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집니다 하는 정도로 자료 안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의원 뭐하러 합니까? 市議會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상당히 꼼꼼히 생각을 해 봤어요. 總務局長 개인한테 이 해명을 듣고 받아야 할 것인지, 아니

면 總務局長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本部長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 내용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本部長으로서 總務局長에게 보고를 정확히 받으셨을 줄로 생각을 하고 우선 本部長께서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때 그러한 절대로 저는 줄 수 없습니다 하는 내용을 한 總務局長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얘기를 듣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亨吉 委員; 金亨吉 委員인데 먼저 同僚委員 朴謙洙 委員 질의에 대해서 우선 總務局長이 왜 그러한 동기와 배경과 답이 나왔는가를 먼저 듣고 本部長이 얘기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委員長 金永春; 總務局長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總務局長 金鍊喆; 總務局長 金鍊喆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대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市議會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ARS를 18억 9,000만원을 議會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금년도 예산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交通管理室의 예산 가운데서 특별히 10억원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자를 증원하는 문제가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議會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다가 보니까 각 본청의 일부 간부들은 생각하기를 행정의 정상적인 경로를 무시하고 위원님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업무를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교통기관이다 이런 인식

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우리 교통방송을 아끼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쪽에 특별히 로비를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님들은 말하기를 그렇다면 議會의 위원님들이 기자가 6명이 필요한지 5명이 필요한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그냥 기자를 몇 명 증원해 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납득하겠지만 6명을 증원해 달라고 한 것은 분명히 교통방송에서 로비를 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야 전에 드리든 결재를 받고 드리든 하등의 문제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입장에 있는 저희들이 그것을 市長님께 서류를 결재 받으려고 갖고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손에다 드러서 만약에 가서 이것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마 市廳에서 저희들은 완전히 행정의 ABC도 모르는 형편없는 친구들로 낙인이 찍히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총괄은 本部長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總務局長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못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결재가 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위원님이 오해하셨습니다만 저의 입장 때문에 어떤 비밀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事業所로서 우리가 本廳의 어떤 局이라든지 課가 아닌 事業所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올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金亨吉 委員;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조금 분개가 되는 것이 결재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교통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본 사안은 결재중에 있음, 이렇게 하면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 것이예요, 안 되는 것이예요?

○總務局長 金鍊喆; 만약에 전에 이런 일들이 누적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 말씀도 안하고.....

○金亨吉 委員; 그러면 당신이 소신 없는 總務局長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비밀사항이라고, 또 교통위원이 당연히 알아야 될 의무사항이야, 또 권리야.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비밀이고 안 됩니다, 됩니다, 막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인데 결재를 올리는 과정이 있으면 우리 교통방송의 案은 이렇습니다, 또 이것은 현재 결재중에 있기 때문에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면서도 충분히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總務局長 金鍊喆; 만약에 앞에 우리가 그러한.....

○金亨吉 委員; 내 얘기를, 만약에를 따지지 말라고요.

○總務局長 金鍊喆; 그런 앞의 일이 없었으면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金亨吉 委員; 언제부터 교통방송국이 자료 달라는데 그런 식으로 답이 나와요.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당신 진짜 그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 왜냐 하면 나는 그 얘기 듣고난 다음에 지금 흥분이 되는데, 위원이 일단 자료 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엇인가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또 지금 현재의 진행절차가 어떤가, 전반적인 시정사항도 파악하고 하려는데 초점이 있고, 또 다음에 기자증원 문제도 아마 朴謙洙委員이

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료요청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결재중에 있는 서류다 해서 못 준다고 하는 것은 總務局長으로서의 문제가 있다.....

○委員長 金永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우리 金亨吉 委員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사항이면 답변을 해 보세요.

○總務局長 金鍊喆; 위원님 말씀도 견해에 따라서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시다만 원칙론으로 따지면 우리가 우리 기관에서 어떤 행정의 의사가 최고 결정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미정상태에 있는 그런 자료를 위원님께 넘긴다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朴謙洙 委員; 저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總務局長님 잠깐만요, 總務局長 제가 다시 한 번 지난번 예를 똑같이 들어드릴게요. 地下鐵公社나 都市鐵道公社나 직제개편을 하면 직제개편하기 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직제개편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먼저 사전에 상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제개편이 끝난 뒤에 이미 議會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이나 市 행정상 입장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나면 그때는 늦기 때문에 미리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안이 작성되면 그 시안을 가지고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확정이 되면 市長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자기들로 볼 때는 대외비입니다. 그러나 그 대외비를 위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설사 대외비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은 자료 가져올 때 이것

은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닙니다, 대외비로 해 주십시오, 이러면 위원들이 대외비로 합니다.

그러나 알권리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타당하다는 것은 감히 공직자로서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總務局長 金鍊喆;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도 어떤 새로운 사업을 위원님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와서 당연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개요는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위원님께서 市長님과 이미 중식석상에서 이미 다 설명드린 바고 다 아는 바고 이제 다만 형식적인 결재절차만 남아 있는데 그 결재기안 서류를 사전에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池昌洙 委員님 말씀하세요.

○池昌洙 委員; 그러한 진행사항을 本部長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總務局長은?

○總務局長 金鍊喆;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朴委員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을 당시에는 우리 本部長님은 휴가중에 계셨습니다.

○池昌洙 委員; 휴가를 다녀온 후라도 시간적인 여건은 됐을 텐데 그런 사항을 局長 입장에서 本部長에게 전부 보고를 했죠?

○總務局長 金鍊喆; 사전에 그런 계획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진행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池昌洙 委員; 그런데 本部長님의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總務局長 金鍊喆; 本部長님은 朴委員께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池昌洙 委員; 보고를 안한 것 아니에요?

○總務局長 金鍊喆; 공문의 내용자체를 보고를 드렸다는 것이죠.

○委員長 金永春; 자, 자 委員님들, 발언권을 委員長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십시오.

○池昌洙 委員; 그래서 本委員이 알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總務局長이 독단적으로 말하자면, 本部長하고 협의를 안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굉장히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슨 인사사항 이외에 어떤 사항이라도 委員이 요구하면 당연히 증언해줘야 되고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하면 윗사람들과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끝까지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金鍊喆; 사후에 보고를 드리고요. 本部長님이 결재난 서류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라고 해서 제가 여기 찾아왔다가 委員님을 못 뵈었습니다. 그래서 本會議 하는 동안에 하루를 사실 나오시는가 해서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어제 와서 제가 사전에 저희들 이렇게 됐습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朴謙洙 委員; 사후보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局長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료를 주라는데 그렇게 안 줍니까? 절대로 못 줍니까? 일을 市에서 다 결재나고 난 내용을 이렇게 보고하려고 합니까?

- 委員長 金永春; 네, 梁敬淑 委員 질의하세요.
- 梁敬淑 委員;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인원문제를 충원할 때 市의 어느 부서와 의논합니까?
- 總務局長 金鍊喆; 市政開發擔當官室하고 의논합니다.
- 梁敬淑 委員; 그러면 市政開發擔當官室에서 市議會에서 예산심의 할 때 교통방송 예산이 계속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방송은 市議會하고 다 하지 왜 우리하고 의논하느냐, 이런 식으로 로비설 비슷하게 하면서 누가 제기했어요? 市政開發擔當官室에 있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 總務局長 金鍊喆; 어느 특정기관을 저희들이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일이 한쪽에서 다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세 가지 일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梁敬淑 委員; 인원충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市政開發擔當官室이라고 의논해서 결재를 올릴 때 市政開發擔當官室을 거쳐서 副市長, 市長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 總務局長 金鍊喆; 다른 데 여러 곳의 협조를 받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市政開發擔當官室.....
- 梁敬淑 委員; 그러면 다른 곳 여러 곳은 어디어디예요?
- 總務局長 金鍊喆; 예를 들면 內務局長이라든지.....
- 梁敬淑 委員; 그러면 이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어떤 의문을 제기했던,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방송에 대해서 市議會에서 교통방송을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추가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로비를 하지 않았냐라고 한 부서가 어느 부서냐는 말이에요.
- 總務局長 金鍊喆; 그 동안에 지난번 저희에게 처음 도와 준 이후에 몇 분들이 사적으로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어

느 부서라고 꼭 지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면 몇 분들이 누구예요? 어느 부서에 있는 누구냐구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구요. 최종 예산의결권과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議會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충분히 정책검토를 해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도 있고 삭감시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市 직원이 누구냐구요. 어느 부서의 누구예요? 그것을 밝히셔야지 局長님의 오해가 풀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방송전문직 충원계획 보고자료가 있는데 8월 14일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어요, 11명 채용계획을. 그런데 여기 기자가 없구요. 그러면 交通放送局에서 언제 이 결재안을 올렸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비토당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기자채용계획을 서울시에 올리지도 않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채용인원이 프로듀서하고 아나운서하고 방송실 교통분석, 이 분야만 필요하다고 교통방송 차원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인원만 공고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는 기자직까지 포함해서 인원충원을 더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서울시의 그러한 시각 때문에 기자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이 안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總務局長 金鍊喆; 지금 우리가 충원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인정받아 있는 TO에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충원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원하게 되어 있는 기자는 거기에 앞서서 직제규칙개정안이 통과돼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梁敬淑 委員; 직제규칙개정안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정되는데요?

- 總務局長 金鍊喆; 市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梁敬淑 委員; 그러니까 市의 권한입니까?
- 總務局長 金鍊喆; 그렇습니다.
- 梁敬淑 委員; 그러면 직제개편을 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 總務局長 金鍊喆; 했습니다.
- 梁敬淑 委員; 그것이 언제입니까?
- 總務局長 金鍊喆; 8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 梁敬淑 委員; 그런데 왜 8월 12일에서야 했습니까?
- 總務局長 金鍊喆; 市長님 결재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梁敬淑 委員; 규정자체가 구비되지도 않았는데 결재를 먼저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 總務局長 金鍊喆; TO를 우리가 얼마 더 늘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市長님 결재가 났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직제규칙개정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 梁敬淑 委員; 그러면 기자충원에 대해서 市長 결재는 났습니까?
- 總務局長 金鍊喆; 났습니다.
- 梁敬淑 委員; 그게 언제쯤 났습니까?
- 總務局長 金鍊喆; 8월 6일자로 받았습니다.
- 梁敬淑 委員; 그러니까 8월 6일에 먼저 결재를 받아놓고, 市長 결재로 그 기자 6명 충원하기로 했습니까?
- 總務局長 金鍊喆; 8월 6일에 증원하기로 市長님께서 결재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제규칙개정안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 梁敬淑 委員; 그러면 내용적으로 결재가 난 것과 마찬가지로

거든요. 직제개편안을 특별히 市長이, 이것이 좀 본말이 전도 됐는데 원래는 직제개편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을 해 놓고 결재를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결재 먼저 받아놓고 직제개정안을 냈는데 앞으로 이것이 결재까지 난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보류되거나 반대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總務局長 金鍊喆; 없다고 봅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면 언제 이 기자충원 할 계획이에요?

○總務局長 金鍊喆; 저희들이 빠르면 9월중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일내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다음 金喜甲 委員 말씀하세요.

○金喜甲 委員; 總務局長님 앉으시고, 本部長님이 우리 朴謙洙 委員님이 자료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으셨고 어떻게 하시라고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本部長님이 그런 어떤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있는 지시를 하실 수 있는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을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대외비라서 委員들한테 자료 갖다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입니다.

우선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市議員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 특히 기자충원문제에 대해서, 교통방송 발전에 대해서 독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때 마침 휴가중이었습시다만, 朴謙洙 委員님께서 우리 總務局長한테 자료를 갖다 달라고 요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본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면, 교통방송에서는 감출 것도 또 비밀인 사항도 없습니다. 완전히 공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수 차례에 걸쳐서 교통방송의 업무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감추고 은폐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朴謙洙 위원님께서 總務局長한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휴가를 갔다가 막 오니까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朴謙洙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결재를 副市長님과 市長님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결재를 받아놓고 市長님과 副市長님께 그 전에 구두로 이미 이것을 양해받아 냈기 때문에 나머지 결재사항은 요식행위라고 생각하고 總務局長한테 위임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갔다 오니까 總務局長이 결재를 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가기간중에 朴委員님께서 그런 요청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미 결재중이라도 안에 단서조건으로, 그리고 이 문제는 특별히 交通委員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만큼 우리가 감출 게 뭐가 있느냐, 즉시 공문 원본을 갖고 朴委員님께 가서 보고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감출 것이 없는 한도내에서는, 행정적으로 피치 못할 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특별히 행정적으로 비밀사항이었다 했었을 때는 그 위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대외비로 해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해 가지고 즉시 總務局長으로 하여금 朴委員님을 찾아뵙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찾아뵈었느냐 했더니 아마 여러 번 가서 못 뵈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뵈지를 못하고, 며칠 전에 總務局長이 서류원본을 갖고 朴委員님을 만나 뵈고

상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朴謙洙 委員;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제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어제 설명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總務局長이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 市長님 결재도 안 났고 또 本部長도 마침 부재중이 돼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희 교통방송의 입장으로서는, 또 本部長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委員님들이 그만큼 도와주시고, 또 기자문제는 委員님들이 먼저 발의해 주셨고 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 기자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어도 委員님들이 요구하시는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즉시즉시 委員님들한테 요구하신 자료를 보내드리고 하는 데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朴 委員님과 다른 委員님들께서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으로서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永春; 이제 이 문제는 해명이 됐습니까?

○金喜甲 委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네.

○金喜甲 委員; 저희들이 이번 97회 市議會 臨時會에서 교통방송의 주요업무보고 자체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우선 있습니다. 적어도 업무보고를 받는 전제로서는 市議會와 市 執行部 기관간에 상호 신뢰와 신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전제하에서 어떤 업무보고가 되고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런 상태의 상황에서 보고를

받고 업무를 질의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委員長님께서 정회를 해 주셔서 지금 本部長이 사과하고 總務局長께서 사과 아닌 어떤 변명으로 일관하고, 도무지 이것 자체가 행정의 ABC도 모르는 행위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보고 결재중인 사항에 대해서 市議員한테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료제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이것은 여러 委員님들 있는 데에서 차후라도 이러한 선례자체를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선례를 남겼다는 행위에 대해서 本部長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委員長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그러면 정회를 해서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金喜甲 委員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습니까?

○金喜甲 委員; 잠깐만요 本部長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즉시 總務局長으로 하여금 朴委員님을 찾아뵙고 또 자료는 즉시 제출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라고 總務局長한테 직접 공문을 대동해서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교통방송이 여러 위원님들이 신뢰를 하고 믿어주시지

않았으면 기자문제라든지 예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으나 생각하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미스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總務局長으로 하여금 朴委員님한테 충분히 사과도 드리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책임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시간을 좀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어떻습니까?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잠깐 할까요?

○金喜甲 委員;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永春;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22分 會議中止)

(15時 37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議事棒 3打)

방금 交通放送本部長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기 전에 그 간의 자료요구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성실하지 못한 태도와 과정 때문에 정회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도 하고 本部長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레나 어떤 법적

인 근거에 의해서 대외비일 경우 사유를 적시를 해서 적어도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근거규정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못합니다, 그런 것 이외에는 사실은 위원에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할 의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가 어떻게 됐든간에 결과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지게 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의사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과정상의 잘못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또 정회중에도 本部長과 總務局長께서 와서 즉 설명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도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 委員長으로서는 선의로 생각을 해서 적어도 자료의 제출문제에 한해서는 상당히 유연성을 갖지 못하고 지나치게 어떤 내부규율이랄까, 관행이랄까 이런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조금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해 말하자면 불응한 것으로 비쳐졌고 상당히 의사진행에 대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에 대해서 總務局長께서는 나오셔서 입장을 위원들에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鍊喆; 總務局長 金鍊喆입니다.

朴謙洙 幹事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幹事님과 또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委員長 金永春; 지금 배석해 있는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이 자료요구가 하찮고 별로 중요하지 않

은 것처럼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의 활동에 있어서는 자료가 근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제출이 곤란하거나 조금 시간지연이 필요한 경우는 요구한 위원님에게 적어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만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交通放送本部長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입니다.

저도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朴謙洙 委員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 교통방송에서 융통성 있게 조치하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즉시 꾸미거나 가감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즉시 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조금 불편한 심기를 가지시더라도 교통방송이 市議會 의원님들을 존경하는 마음과 또 여태까지 계속 교통방송을 밀어주신 그 심정, 신뢰에 계속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열심히 교통방송을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말씀에 앞서서 사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956년 오늘 서울市議會가 개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41년째 되는 생일입니다.

그 동안에 군사통치시대에 議會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41년 전에 서울市議會가 개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

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金永春 委員長님, 그리고 交通委員會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을 살피주시고 특히 교통방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무사히 청사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국 최초로 교통정보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하여 97년도 주요사업도 대부분 원만히 추진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방송은 전문교통방송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우리 교통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交通放送本部 현안사항 중에서 중점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交通放送本部所管當面懸案報告

(뒤에 실음)

.....

○委員長 金永春; 交通放送本部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交通放送本部長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交通放送本部長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本部長께서는 앞

아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金亨吉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李允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亨吉 委員; 金亨吉 委員입니다.

지금 ARS가 7월 30일부터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ARS 기능여부, 당초 계약사항과 실제 기능을 발휘한 실적과 거기에 대한 대비, 말하자면 지적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두번째 사항은 지금 ARS를 가동함에 따라서 홍보방법, 또 시민에게 얼마정도 전파됐는가, 앞으로의 홍보계획, 그 다음에 시민의 이용도수, 이용도수는 주간단위로 통계를 내든 이용도수가 어느 정도 전파되고 있는지 답변을 안해도 좋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ARS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永春; 네, 李允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允中 委員; 李允中 委員입니다.

무더운 날씨를 무사히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됐는데 처음부터 얻어터지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특집방송 생방송이라고 해 봤는데 어색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공개방송을 하고자 하는 백화점이 마스크에 화재가 됐던 신촌 그레이스 몰래 카메라 사건이 있는 데인데 그런 방송을 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백화점측에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보는데, 협찬금을 받으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없습니다.

○李允中 委員; 광고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기 가을 프로그램의 개편에 대해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제가 교통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뉴스를 자주 듣는데 뉴스가 다른 데보다 좀 미흡하지 않은가 발견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RS관련 교통통신원들의 ARS용 장비, ARS용 핸드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서울市長·교통전문가·교통위원, 교통문화 캠페인에 대해 방송했던 원고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은 좋은 캠페인이었다 하는 것이 있으면, 교통문화 창달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녹음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 충남 천안시 입장 거봉축제를 한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그렇게 서울뿐 아니라 충남까지 방송이 나온다는 것이 교통방송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청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다음 李始英 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李始英 委員; 李始英 委員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 방송전문직 충원계획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연설명 할 때 交通放送本部長께서는 지방 민영TV, CATV 출범으로 교통방송에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交通放送局이 있으면서 기타 지방방송국이 생기면서 방송전문요원들이 이직할 수 있는 길이 널려있다, 또 이에

대해 향후 일어날 대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本部長 말씀하신 것 가운데 좀 의문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첫번째가 本部長이 지금 새로운 충원인원 11명, 기타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인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가 영어를 잘 하는 사람, 세계화 시대에 발맞출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인 것 같고요. 두번째는 토익시험에 미국에서 850점이상을 맞으면 상당히 우수한 인력으로 생각하는데 交通放送本部에는 985점, 960점, 이런 천재적인 재질을 가진 사람이 왔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本委員이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토익점수가 외국에 갈 수 있는 최고가 몇 점이라고 알고 있어요, 커트라인이?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750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李始英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일수록 화합을 못해요. 절대적인 개인주의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토익문제를 중시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실전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군에서도 야전병으로서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지 머리좋은 사람이, 정보나 참모를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한 인력을 뽑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실력자를 뽑아야 될 것이다, 그들한테 오직 여기서 토플시험 얼마 받고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本部長께서는 議會에 보고를 할 때는 이런 좋은 인력도 왔지만 사람이 머리만 좋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뭘니까?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화목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이다, 나는 결코 交通放送局에 토익시험 만점에 가까운 사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交通放送局과 서울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本部長은 이런 보고를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원된 부분 11명에 대해서는 뭐 5,000명은 못 오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면접을 보는데 몇 명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심사를 볼 때, 즉 와서 자기의 신상소개라든가 논술고사를 볼 수 있는 의제라든가 향후 서울시 交通放送局的 발전상에 있어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느냐 그것을 봐 가지고 뭔가 정해서 이런 사람같으면 뭔가 할 수 있다, 특수한 학교, 특수한 언론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우리 실력자를 뽑아야 될 것이고 무엇인가 금전에, 급료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포부와 꿈과 희망과 이런 것을 펼 수 있는, 앞으로 21세기의 비전이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주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本部長이 머리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인드를 좀 포괄적으로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네, 李聲九 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李聲九 委員; 李聲九 委員입니다.

ARS 실시에 대해서 그간 우리 委員들도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7월 30일자로 실시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제도가 아직 시민들이 많이 생소할텐데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金亨吉 委員께서 아까 자료요구를 하던데 李聲九 委員한테도 같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ARS라고 하면, 이 자동응답시스템이 우리 방송국밖에 없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현재 그렇습니다.

○李聲九 委員; 현재 준비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현재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기아한테 59억에 낙찰을 줘서 준비하고 있고.....

○李聲九 委員; 언제쯤 개통됩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거기는 애초 6월 개통예정인데 아직 준비를 못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로 예측하기에는 10월쯤 시스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는데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建交部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포함해서 이 ARS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그때 현대전자·삼성, 전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동통신이 89억에 낙찰받아서 거기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올 10월, 11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업체가 앞으로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교통정보를 유료화 시켜서 장사를 하겠다고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부가 시험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저희가 검토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고 교통상황도 원활하다, 지체이다 이런 정

도의 수준으로 해서 몇 군데 시험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대강 보니까 4군데에서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李聲九 委員; 아무튼 우리 방송이 먼저 시작했고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여기면서 머지않아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따라오기 전에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자리를 굳건히 세워주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洪性龍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洪性龍 委員; 洪性龍 委員입니다.

첫번째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추석 교통 특별방송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이런 과정을 누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편성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또 기타 방송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편성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교통 특별방송이 단계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 교통량 예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교통량 예측을 누가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정보를 통해서 예측해서 이것을 방송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특집생방송에서 이 유자녀 가족에 대한 실태를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자세히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일 그 유자녀 가족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梁敬淑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梁敬淑 委員; ARS자동응답시스템이 지금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플렛을 20만매 정도 서울시민이  
나 수도권 주민들에게 배포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배  
포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들의 수요를 많  
지 않게 함으로써 어떤 부담을 덜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  
게끔 하는 역할까지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오히려 서울시 交通管理室이나 연관부서를 통해서라도 이러  
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  
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며칠 되지는 않았습시다만 한 1달 정도 조  
금 더 지났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대한 평  
가, 불만,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는 어떤 방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주기적으로 저는 꼭 할 필요가 있  
다고 보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월별로 한 번씩 한  
다든지 이러한 계획도 동시에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되는 여론들을 다시 보완하고 반영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제고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은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어떻게 잘 작동이 되  
나 오늘도 내가 한번 해봤는데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또 몇 번을 놀러라, 그런데 보통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가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과연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운전하면서. 금방금방 지나가고 그러면서 또 금방금방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또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면도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보완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하고.

또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회의체 같은 것, 자문단·같은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문을 해주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정보요원들이랄까 통신원들의 자문단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감리보고서 결과를 제가 즉 검토를 했는데 감리보고서에서 아주 온건하게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건하게 지적은 했지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권고사항도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권고이전에 본질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들, 예를 들면 기술을 완전히 시스템이 잘 작동할 때까지는 그것을 제공한 기술담당자가 상주를 해줘야 된다고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보완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道路交通安全協會에서 언론보도에 보니까 9월부터 ARS를 실시하는데 전국을 다 커버하는데 서울시 교통방송이 여기에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파행적인 절름발이식 운영

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서울시 교통방송을 비난하는 그러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성을 가지고 오히려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전국망을 가졌는데 서울시만 떨어져 있을 경우에 정보의 고립이랄까요, 네트워크나 이러한 협조를 충분히 받으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해야 결국에는 이것이 자치단체나 국가나 무슨 어떤 독점적으로 누가 더 파워가 있느냐, 누가 더 이것을 잘 하느냐, 어떤 행정편의적인 자치단체 편의적인 사고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 국민들에게 자치단체나 국가가 얼마나 협조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제공되는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 안하고 서로 싸움만 하고 경쟁하고 실질적으로 협조를 안하고 독자적으로 인정해주고 사무분담을 독립적인 어떤 사무를 이양해야 될 것은 이양 안해 주는 그러한 것이 지금 정부에서 잘못된 정부정책인 것 같아요.

지자체도 그런 면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전국망에 대한, 왜냐 하면 교통방송에서도 고속도로에 대해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미흡한 느낌이 들었어요, 고속도로를 제가 서비스를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道路交通安全協會가 어떤 전국망을 가질 경우에는 더 정보가 많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립하기 보다는 한편으로는 협조도 해주면서 장기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서 그런 대책은 또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시정홍보 프로그램 여론조사 결과를 議會에 제출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그러니까 500명을 어떻게 추출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고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이 아쉽다라는 이런 여론결과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러한 여론조사에 비중을 과연 교통방송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는 것인지, 단지 여론을 한번 들여보자 이것이 아니고 비중을 좀 두고, 실질적으로 또 여론이라는 것이 꼭 반영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즉흥적이고 감성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서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도의 비중을 두고 반영하고 보완하고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좀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地方警察廳에서 보내온 공문을 검토하니까 지금 루프검지기 협조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분석자료에 보면 루프검지기 자료는 사실상 용도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처음에 2,900개 정도 설치했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00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97년도가 사용년한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가치가 없는 그러한 정보가 돼 버렸다, 이런 보고가 여기저기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그런 검토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교통방송에서는, 이 자료대로.

그리고 警察廳에서 정보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몇

번 얘기하고 있거든요. CCTV카메라 영상정보자료 외에는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협조도 해 줄 수 없고 루프검 지기도 제공해 줄 수 없다, 이런 비협조적인 자세를 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많이 하고 또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ARS시스템이 좀 단순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실들을 議會에 협조를 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서울시에 왜 이러한 협조를 구하지 않았는지?

왜냐 하면 서울시가 CCTV 설치예산을 소관부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씩 해마다 대줬고 경찰운영비 또 신호기설치비 이런 등등을 警察廳 소관예산을 서울시가 수백억원씩 제공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고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교통방송선에서만 이것을 처리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처리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것이 지금 벌써 96년도 중반기인데 9월, 이럴 때 이러한 답변들이 오고가고 했는데 그때 議會에 협조요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나서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곤란에 처해 있으니 서울시가 좀 나서서, 議會가 좀 나서서 이러한 협조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왜 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상당한 행정적 차질과 시민에게 좀더 많은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교통방송 스스로가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왜 그때 당시에 그러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는지

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들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朴謙洙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朴謙洙 委員; 朴謙洙 委員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문제를 가지고 정회까지 하게 돼서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는데 앞으로 절대 그와 같은 실수가 없기를 다시 한 번 바라면서, 그런데 그 내용이 당연히 업무보고에 포함이 됐어야 원칙 아닙니까? 기자충원 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업무보고에 이리이러한 결재가 돼서 이렇게 했다하고 이것이 들어가야 원칙인데 중요업무보고인데 그것은 왜 빠져 있습니까? 구체적인 보고를 해야죠.

○委員長 金永春; 그 문제는 직접 답변을 즉석에서 하십시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것은 市政開發擔當官室에서 조례작성을 해서 지금 市議會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규칙하고 조례개정이 되는 것이 市議會에 넘어오면, 이 다음 회기중이라 직제규칙이 확정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직제규칙은 議會하고 상관이 없죠. 내부규칙이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내부규칙입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永春; 내부규칙은 交通放送本部 차원에서 규칙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市政開發擔當官室에서 기안을 해서 市長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서울시 직제규칙.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모든 것이 집행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朴謙洙 委員; 그것은 확정나면 집행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 이를테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결재가 이미 났기 때문에 市長 결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래서 혹시나 결재부분이 지금 저희들로서는 변경되거나 거부될 가능성은 없다고, 지금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직제규칙이 개정되지 않아서 다음번쯤해서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朴謙洙 委員; 지금까지 市政開發擔當官室에서 했던 것을, 그 자료를 월요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알겠습니다.

○朴謙洙 委員; 지금 청취율 조사한 것을 봤더니, 本委員이 요구한 자료에서 자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청취율 조사한 것을 보니까 자체평가 결론으로써 몇 가지 문제가 나왔네요.

첫번째는 이것이 자체평가라고 규정을 하고, 따라서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 방송사 협찬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타 방송과도 비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갤럽 같은 데에 의뢰해서 또 한 번 타 방송사와 비교해 보는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난, 교체된 MC의 경우 인지도가 낮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을 예측하고 교체를 한 것

인지, 아니면 교체해서 인지도가 높아야 교체한 의미가 있지 교체해서 인지도가 낮으면 교체를 잘 못했다는 이런 결론이 난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BS 컬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교통목적과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진행도 그럴 뿐더러 선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本部長의 의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그러면 우선 앉아 계시는 委員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좌석에 계시지 않아서 들을 수 없는 분들의 문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우선 지금 현재 좌석에 계신 委員님들을 중심으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洪性龍 委員님의 교통사고 유자녀 가족실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연구한 게 있는데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측정량과 朴謙洙 委員님께서 TBS 컬럼 공정성과 객관성은 저희가 각별하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서 훌륭한 컬럼이 되도록,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MC 교체 인지도와 그 문제점은 洪性龍 委員님과 마찬가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編成局長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朴謙洙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추후 개편에서 한국갤럽에 한 번 더 의뢰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문안을 작성해서 이달 말일쯤 해서 갤럽에 의뢰하려고 문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의사하고 어떻게 일치하겠다는데요, 지금 발주 직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朴謙洙 委員; 문안작성은 우리 방송사에서 이러한 것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하고 의견서를 내면 갤럽에서 문안작성 다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저희가 기본안으로 선호도라든지 MC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과거에 했던 자료 가지고 더 붙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본안을 만들어서 갤럽사람들과 같이 합동회의를 해서 전문적으로 다듬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것이 타 방송사와 같이 청취율 조사하는 전체적인 조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방송사만이 아니라?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문항작성 하는 기법에서부터 결론을 유도하기까지가 사실상.....

○朴謙洙 委員; 그래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똑같이 어떤 문제를 놓고 MBC에서 한 것, KBS에서 한 것과 또 저희가 한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론조사의 맹점이고 한테요, 그래

서 최대한도로 객관성을 유지해가면서 객관적인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방송사에서 하게 되면 객관성 유지를 못하니까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그렇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때, 이번에 조사한 것은 우리 방송사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사한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 방송사뿐만 아니라 전체 라디오 방송사를 대충 다 같이 조사해야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그런데 방송사간에도 청취율이라든지 선호도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송평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꺾림같은 데 요구해서 MBC 프로그램 이것은 어떠냐, KBS 프로그램 이것은 어떠냐 조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방송사하고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송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전체방송에서 일반 청취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러한 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런데 말씀이 약간 정확하지 않는데요. 우리 교통방송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를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교통방송 위상을 평가하려면 타 방송사에 비교가 돼야 교통방송의 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타 방송사도 같이 중요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항목을 넣어서 평가를 하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뢰하면 문안작성도 께럽에서 다 하는 것이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 朴委員님한테 자문도 받고 저희 案도 토론할 겸 審議室長을 며칠내에 우리 朴委員님한테 방문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謙洙 委員; 그러니까 원칙을 그렇게 세우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梁敬淑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플렛 20만매를 警察廳 각 부서 민원안내실, 區廳 민원안내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유소에 무작위로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통통신원들로 하여금 일반시민들한테 배포하도록 했습니다만, 20만매가 사실은 부족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梁委員님께서 이것이 조금 시스템상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필요한 전화에 대해서 방어능력이 없을 경우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맨 처음에 이것을 한꺼번에 했을 때 어떤 상태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만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아무도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지금 建交部하고 道路交通安全協會하고 道路公社하고 情報通信部에서 지난번 委員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02-3455-7000을 누릅니다. 이것을 저희가 특수번호를 요청했고,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1331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1331이 서울시내 중심으로 한 교통방송, 1332가 고속도로, 1333이 기타 지방도로 및 다른 정보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계 기관들하고 10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이것을 情報通信部에서는 독자적으로 줄 수는 없고 133에서 나눠서 가지고 가되, 9월말이나 10월초부터 집행을 시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고, 거기에 대한 중앙컴퓨터를 설치하는 비용을 18억정도 든다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보고 분담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협회에서도 아직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고, 또 SK텔레콤이 결정되지 않은 차에 우리는 지금 실시한 마당에 우리가 9월말에서 10월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실시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쪽 상황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우리 정보만이 거꾸로 유출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해서 우리는 특히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저희가 통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SK텔레콤 이사 두 분이 별도로 찾아와서 이 문제는 자기네들이 경비를 부담할 테니까 133 123으로 해서 그렇게 통합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는 경비부담을 당신네들이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情報通信部에서 내지는 않았습시다만 요새도 그것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10월초 아니면 중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삼보정보통신하고도 이것을 협의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1331로 즉시 변경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변경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느냐 해서 삼보사장한테 확약을 받았습시다. 그렇게 크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노력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잠정적인 예측입니다만, 9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이것이 통합이 되지 않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너무 많이 홍보를 해 봐도 그냥 없어지고 그냥 1331로 전부 통합이 돼 갑니다. 그래서 20만부를 일단 예산을 전부 집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남겨뒀습니다. 1331을 할 때는 또 이것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 만족도가 어떠냐, 이것을 주기적으로 월별 기획을 해서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나중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어떤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들로서도 이것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정보실에서는 저보고 잔소리꾼이라고 합시다만, 거의 전원이 저한테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조금 속된 표현으로 다했습니다. 해서 현재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반성도 많이 하고 제발 날 잔소리꾼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거꾸로 합시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아침 7시 30분에 ARS 전직원이 출근합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은 밤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總務課에 특별지시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시스템 전원이 전부 점검하고 이것을 보려고 그러면 아침 6시 반에는 집에서 나와야 되고 집에 가면 10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안착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 ARS를 정착하기 위해서 교통방송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근무를 특별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梁敬淑 委員님께서 안내목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애초부터 우려하던 바입니다.

안내목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패한 케이스로서 저희는 國稅廳에서 발표한 그 안내문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샘플이 처음에 안내를 눌러서 제자리 찾아가서 답변을 들으려면 5분 이상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빗발치는 비난과 더불어서 실시가 아주 불투명하게 된 그런 결론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내책자에다 자세히 넣었는데 앞으로는 이 10 자리가 4번 누르면 133이 1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07을 누르면 그냥 서비스가 직접 나옵니다. 133107을 누르면 해당 번호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습성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교수의 평가자문단에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노루가 산속을 돌아다닐 때 돌아다니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잡는 방법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A라는 시민이 이용했을 때는 특별히 어떤 생소한 지역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다니는 지역을 누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천호동에서부터 상계동, 광화문까지가 제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 번호, 특별히 되는 번호는 거의 외울 수가 있는 정도가 되고 많은 번호를 찾아서 눌러가면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경향보다도 자기가 가려고 하는 코드를 누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질은 없지 않을까 하는 추측과 이것을 예측만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는 이 팝플렛이 없으면 이 코드 번호를 누르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걸리고 짜증이 나게 되면 무슨 이 ARS 실시하느냐 하는 이런 식의 비난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용자에게 코드번호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삼보정보통신하고 여기 까지 토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LG전화를 요새 선전하는 것을 보면 번호를 누르지 마세요, 본부하면 되는 뭐 이런 선전팝플렛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우리 립에 숫자가 120개에서 130개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조금 가감을 해도 별안간에 많이 확대할 수가 없고 4.50개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삼보하고 지금 이 시스템이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331 딱 누르고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천호동하면 1331로 광화문하면 광화문에서부터 저기까지, 광화문 남단 그러면 상계동에서 남단으로, 말로써 이것을 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내고 뭐고 없이 대단히 이것이 아주 간편해지고 첨단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삼보한테 우리가 추정으로도 이것을 市議員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할테니까 이것을 1331 되면서 이것을 실시하십시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산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터무니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梁敬淑 委員; 얼마 정도 든다고 그래요? 음성서비스로 하는 것이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음성인식시스템을 여기다 접목시켜서 하는 것을 거기서 6억원부터 10억원 사이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음성인식시스템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소프트웨어 노하우에 대한 물론 자기 고유의 것도 있습니다만 한 2.3억원 정도만 해도 이번 가을부터 이것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저희가 그것은 압니다.

삼보가 이것을 해서 이미 돈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조금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직 1331도 좀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숙제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자문단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평가자문단을 자문교수단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또는 우리 모니터요원들도 있고 시청자위원들도 있는데 그쪽도 계속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협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보고서에서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맨 나중에 상당히 유연하게 감리보고서 권고사항으로써 얘기를 했지만 저희로서는 사실 그것이 상당히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이행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권고사항 중에서 제일 큰 것이 ARS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저희들로서 운영하는 것이 아무리 교육됐다고 그것은, 언제든지 어느 시스템이 어떻게 나갈지 압니까?

그래서 이 권고사항을 갖고 저희가 감리단장과 또 저희 관계국장들과 삼보사장이 전부 연석회의를 해서 거기서 각서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ARS 기간이 2년인데 최소한도 1년 동안은 직원을 상주시켜서 같이 해야 된다, 거기에 인건비 드는 것은 알지만 다음 프로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겠다 해서 각서를

받고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쪽 한 사람과 하드웨어쪽 한 사람, 두 사람이 저희 회사로 출근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권고이행 사항에 대해서 상세설계도와 기본설계도 이것을 다시 보완해서 전부 받았습니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맡겨 주셔도 큰 착오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면 삼보직원들이 지금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것을 지금 저희는 조금 욕심을 부려서 2년 동안이 AS기간이니까 전부다, 그렇지만 사실 무리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은 되고 저희는 1년까지는 같이 해야지만 저희 시스템에 대한 보완, 이것이 그리고 계속해서 보완발전 시켜야 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니다만 ARS에 대한 장기계획, 또 이것을 계속사업이다 하고 간주했을 때 저희 교통방송으로 운영방법과 운영전략,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4군데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경쟁력 강화단에서도 한번 지적이 된 바가 있지만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프로젝트 갖고 국력낭비입니다. 해서 이것을 전부 통합시스템으로 하는 방법은 어떠냐 하는 것을 지금 총리행정1조정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으로 추진되

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삼보에서 노림수는 그것입니다.

통합으로 됐을 때 우리 교통방송이 먼저 이것을 했으면 그것을 한 당사자지만 여기서 밀진 돈은 그쪽에 가서 커버를 하겠다 하는 속셈도 사실 있다는 것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삼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경주했다 이렇게, 미끼가 있으면 물고기가 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언제 진행될지는 사실 모릅니다만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통합이 될 가능성도 지금 많이 있다 이렇게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梁敬淑 委員; 그 4군데가 어디예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는 지금 입찰이 기야하고 세트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建交部입니다. 建交部는 이동통신, 지금 선정 SK 텔레콤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89억원에 입찰해서 거기 하고 지금 같은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道路公社입니다. 그리고 저희입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와 수도권만 하지만 道路交通安全協會나 建交部나 道路公社는 전국망을 다 ARS를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렇습니다. 그런데.....

○梁敬淑 委員;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예산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국가 예산에서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은 네비게이션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建交部에서도 그렇게 발주를 했어요. 서울과 전국.....

○梁敬淑 委員; 그러면 警察廳은 아니고요? 警察廳에서는 道路交通安全協會로 가는 것이지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警察廳은 道路交通安全協會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동통신에서도 일본 네비게이션시스템에다 연결시키는 교통정보를 TV하고 네비게이션시스템에다 연결시키려고 했을 때는 일본 시장이 저희가 추산하기로 작년에 2,000억엔 시장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建交部쪽에서도 그렇고 또 안전협회에서도 그렇고 지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서울을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현대차니, 대우차니 여기다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으로 돼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에 梁敬淑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道路交通安全協會하고 지금 전국 교통방송이 비협조다, 지난번에 신문에 난 사항에 대해서 대립보다는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대립보다는 상당히 서울시, 부산도 그렇고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사실 교통방송이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조관계를 넘어서 사실은 밀착관계까지 가고 있어서 내가 그 선을 엄정하게 지켜라 이렇게 가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방송이 창립됐을 때 아이디어가 警察廳에서 일본경시청과 대만경찰청, 그것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그래서 警察廳이 서울시에 속해 있다가 그때는 서울시경찰국입니다, 독립해서 나가면서 예산이 서울시에 있고, 그때 高建市長 때입니다. 해서 교통방송이 警察廳하고 같이 독립해서 나가지 못한 것을 警察廳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체에서 가끔가다 농담으로

야, 왜 그때 같이 움직이지 못했어 하는 그런 식의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때 警察廳에서 잔류한 사람들이 현재에도 교통방송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情報室은 주로 警察廳 출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립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지난번에 부산과 광주교통방송을 만든다고 그럴 때 거기서 프로그램 협조라든지 요원들, PD나 아나운서 훈련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까지는 다 도와줘라 해서, 또 안전협회에서는 그 반대로 저희한테 협찬으로 상당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액이 2억 7,000만원어치의 협찬캠페인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보다는 협조가 좋지 않겠나 하는데 저의 입장에서서는 대립보다는 너무 협조를 해서 협조의 한계를 지키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형편이니까.....

○梁敬淑 委員; 아니, 협조하는 그런 의미는 국민적 입장에서 협조인데 협조할 때는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제공비를 받아야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렇습니다. 그런데.....

○梁敬淑 委員; 당연히 받아야 되죠. 이것이 협찬액 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협조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보면 앞으로 SK텔레콤하고 완전히 통합시스템으로 간다고 했을 때 서울시는 먼저 개발해서 그냥 갖다 바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낸 적어도 수십 억원 들어간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그쪽에서 받든지, 정보로 받든지, 아니면 어떤 자금으로 요구해서 자금으로 받아내야죠. 그냥 무조건 제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建交部와 국제경쟁력강화단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案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 교통정보 물동량, 그러니까 화물차에 버스정보까지 합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교통정보 최신첨단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작성된 案이 지금 현재 3,250여 억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 비중이 교통정보, 우리가 말하는 ARS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案을 저희가 입수해서 정보를 본 것입니다만, 서울시의 분담금을 1,100억원으로 案을 잡고 있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18억인가 16억, 우리 ARS 집행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미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交通放送局에서 이미 완성돼서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갖고 조금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런 정도라면 교통방송차원에서 자꾸 道路公社나 이런 데와 개별 본부가 협의하기 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협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副市長이나 交通管理室長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정책회의에 이 부분이 회부돼서 지금 정책회의가 주로 국장급 선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회의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교통방송 개별사업본부 차원에서 계속 그것을 요구한들 수용도 안 될 것이며, 결국에는 적어도 이렇게 분담금

을 1,000억 이상 요구해 올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와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협상이 되는 것이지 사전에 본부차원에 압력이든 그렇지 않든 제공을 해 버리고 나중에 가서 그때 우리는 공짜로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얘 기죠.

그렇기 때문에 交通管理室하고 오히려 충분히 협의되고, 아 까 警察廳하고의 협조, 이런 부분도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했 어야 하는 문제인데 자꾸 본부차원에서만 대응을 하다 보니 까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주장하는 게 관철이 안 되고, 타당하고 정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꼭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래서 계속 저희가 보고서를 내 고 交通管理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交通放送本部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여러 가지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交通管理室 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루프검지기 협조분위기도 사실이 그 령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저한테 개인의사는 어떠냐고 물 으셨는데, 개인으로서 판단하기로는 警察廳에 상당히 쉬쉬하 다가 지금은 루프검지기에 대해서 거의 효용성을 상실했다 고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議會의 협조를 구할 사항과 교통방송선에 처리할 사항을 本部長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議會에 협조할 것은 계속 여러 委員님 도움을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또 교통기획실에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봐 가면서 交通管理室長과 副市長님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취율 부분에 대해서 梁委員님이 또 하나 물으신 것이 있는데, 시정홍보 500명…….

○梁敬淑 委員; 청취율이 아니라 여론조사에 대해서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이것은 사실 봄·가을 2회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참고자료로 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이 21나왔다, 28나왔다 하는 것은 사실 성향을 보는 것이지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정적으로 과학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500명에 대한 분배방식은 지난번에 교통방송이 꺾림과 협의해 가지고 차종비율을 고려해서 특히 자가용 200명, 택시 200명, 버스 100대 해서 안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운전중 청취율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할까, 교통방송이 편의주의적으로 한 경향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꺾림에서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조사를 해 주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梁敬淑 委員; 어느 꺾림입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한국꺾림입니다.

○梁敬淑 委員; 이런 것 하면 용역비는 얼마정도 줘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예

산이 적어서 지난번에 꺾림이......

○梁敬淑 委員; 500명 조사하는데 7.800만원이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그래서 그쪽에서 1,000명쯤 하고 문안당 2만 5,000원정도는 줘야지 잘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올해 3번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전부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라서 하다 보니까 500명으로 줄어 들고, 지난번에 꺾림이 700만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하려면 철저히 하든지 해서,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한데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여론조사를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반영시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우리 豫算課도 그렇고 저희 실무자에서도 그렇고 효율성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통방송 입장에서 5,000만원이나 1억쯤 확보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꺾림에서도 안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조그만 것을 왜 하느냐고 그러는데, 교통방송이 왜 작으냐고 덤벼들어서 이것을 700만원 주고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이것도 조사방법이나 예산문제라든지 이왕 하려면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을 豫算課와 협의중입니다만, 本部長 개인생각으로는 한 번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梁敬淑 委員;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정말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해서 그것을 판단해서 비중을 높이는게 낫지 이것이 예산만 편성했다가 요식적,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성의있게 정말 방송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여론조사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사업하실 때부터는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실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ARS시스템이 설치됐는데 설치된 지 한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업그레이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인식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벌써 한참 전부터, 議會에서도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한참 전부터 기술개발이 다 끝나 있었고 시행이 다른 데서는 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설치 다 끝내놓고 예산투자 다 해놓고 보니까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느껴져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됐었다라면 적어도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지금에 와서 우리도 그 부분을 철저히 생각 못해서, 반영을 못 시켜서 議會도 책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특히 기술적이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꼭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SK텔레콤하고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지금부터 얼마만큼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미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계속 정말 무리하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례하게 개발된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다 오히려 부담하면서 프로그램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무례함까지 저지르고 있는 마당에 구체적인 계획을 서울시 本廳하고 本部가 충분히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부분까지 서울시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고, 내놓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당장 돌아가셔서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막 진도는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압력 넣으면서 빨리 제공하라, 빨리 제출하라 이렇게 하면 사실상 대접 한번, 또는 일정한 보이지 않는 로비 또는 한편으로 개인적 로비를 받고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제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프로그램 복제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정책적 판단이 되기 전에 됐다면 本部長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겠어요.

그리고 여기 실무자분들도 분명히 명심하시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정말 양심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관리도 잘 될 수 있게끔, 삼보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계약당사자로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협상이 되기 전에 삼보차원에서 돈을 벌겠다고 중앙정부에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사법적으로 고발조치해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재계약도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감사합니다.

그러면 梁委員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강조를 하면, 심의실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여론조사를 하려면 정말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도록 豫算課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하면서 ARS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 것  
인가를 갖다가 용역을 별도로 진단해 볼까 하는 계획을 지  
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梁委員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팔아먹는 그런 얘기는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는  
서울市 자존심을 지키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관계는.....

○梁敬淑 委員; 本部長님은 그런 자세일지 몰라도 실무선에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방  
식이 많잖아요. 삼보에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실무선에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철저하게 제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그러면 아까 洪性龍 委員님과  
또 朴謙洙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編成局長  
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編成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編成局長 金成吉; 編成局長 金成吉입니다.

먼저, 방송과 관련해서 洪性龍 委員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데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장애인 유자녀 돕기를 했는데 교통장애인 유자녀가 현  
재 얼마나 되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9월  
2일부터 유자녀 돕기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는 약 20만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추세는 2만명으로 추  
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2만명씩 2만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단계 교통량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자료가 나오는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설

이나 추석때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警察廳이 주최가 돼서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추석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저희 간부들이 참석해서 대책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저희 방송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建交部는 어떤 역할을 하고, 서울시 交通管理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회의가 논의가 될 때는 建交部나 警察廳에서 추산, 그러니까 예측량에 대한 분산이동에 대한, 인구이동에 대한 예측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금년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약 1,700만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 간 이동까지 다 합치면 약 3,000만명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거기서 나오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洪性龍 委員; 그런데 예측만 해서 전에 교통상황에 따라서 지내온 뭐라고 그럴까, 상황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운전을 하다보면 생각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보수를 한다든지 도로를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가끔 생각지도 않은 데에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지 교통량 측정한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수도 또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런 면을 두루 살펴서 방송을 해 주셔야 할 것이에요.

○編成局長 金成吉;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저희가 조사해서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공사라든가 어떤 위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서 홍보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없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洪性龍 委員님께서 예를 들어서 추석 교통 특별방송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프로그램 편성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한 예는 말씀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로인데 저희가 특별방송을 설, 추석, 연말연시, 그리고 홍수해 발생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가 교통방송에서, 방송과 관련된 편성은 그렇습니다. 이번 기간, 말하자면 설이 3일이다, 추석이 5일이다, 기간과 상관해서도 편성을 하고 또 장소입니다, 지역간의 장소. 예를 들어서 동절기 같으면 눈이 많이 왔으니까 이번에는 강원도 영동지방으로 스키를 타러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간부들이 앉아서 그러면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고 통신원 배치라든가 방송내용은 어디다 중점을 두고 방송을 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해서 방송 편성과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프로그램 편성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춘계, 추동계해서 2번 편성을 합니다. 그것은 왜 하느냐, 필요성이 없으면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절 때문에 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동절기는 밤이 길고 하절기는 낮이 깁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감안해서 프로그램 편성을 하고, 또 하절기는 해변이나 강쪽으로 피서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프로그램 내용이나 교통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그쪽에 두고 안전이라든가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구체적인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 얘기를 다 말씀 못 드렸습시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洪性龍 委員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다 드렸고, 다음에 아까 朴謙洙 委員님의 MC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本部長님이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고민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프로그램 질 향상때문에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핑계가 아니고 현재 방송가의 흐름이나 어려운 여건은 아마 저희보다도 버금가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사들이 지방을 비롯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송을 하는 전문방송인으로서는 즐거운 비명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우리 방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MC가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능력 있고 그 프로그램 성격에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송사는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로라하는 MC가 몇 사람은 여러분들이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첫째조건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TV매체가 없는 것이 제일 불리한 조건입니다. KBS, MBC, SBS는 TV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출연하는 조건에 라디오방송사를 겸하게 되는 조건이 있고 첫째는,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CATV까지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라디오 출연료를 적용하다 보니까 물론 몇 사람은 나름대로 저희 여건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우를 해 준다고 합니다만 그런 대로 오락프로그램이다, 교통프로그램

이다, 교양프로그램에 심야프로그램에 우리는 생방송이 위주입니다. MBC나 KBS는 3·40%만이 생방송이고 6·70%가 녹음방송입니다. 저희는 95%이상이 생방송입니다, 심야 때까지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은 돈을 더 줄 수 있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물론 프로그램 구성을 잘하고 해서 청취율이 높고 이런 것가지고 내세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열악한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왜 예산확보를 못하느냐, 왜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모로 많이 도와 주시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금 사실 예산과하고 예산현실화에 대해서 저희는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타 방송사하고 비교했을 때 현실화해 달라는 조건으로 원고료라든가 MC료라든가 투쟁이라기 보다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부장, 차장들이 접촉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제외해 놓고라도 제작비에 대해서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고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정말 다른 것은 다 제외해 봐도 좋습니다.

투자사업비라든가 전체적인 투자사업비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編成局에서 요하고 있는 투자사업비는 한 해를 미뤄도 좋지만 조금 전에 청취율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선 시급한 것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市議會에 나왔을 때 우리 李始英 委員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분이 지적해서 이번 개편 때는 어떻게든

지 한번 짜내서라도 금년회기가 한 3.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MC들은 확보해 보자 해서 부장 두 분하고 저희 차장들 7명이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도 지금보다 30%, 40%를 현재 방송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해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뭐 능력이라면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갖가지 조건을 다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저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고 몸담고 있는 이상은 하여튼 저희 청취자나 교통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朴謙洙 委員; 아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던 부분은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 놓고 청취율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결과 자체가 인지도가 낮게 되면 그러면 프로그램을 오히려 개편하는 것이 잘못됐지 않나 이것이죠.

편성해 놓고는 지난번에 우리 李始英 委員님도 즉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어차피 광고액수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MC선정문제나 프로그램 선정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방송 생명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이 청취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교체해서 떨어지게 되면 교체 안한 것만 못하죠. 교체를 주장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체해서 한번 잘해보자 하고.

○編成局長 金成吉; 그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슬러서 춘·하계 개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동안에 물론 일하는 사람의 성향이나 목적이나 생각에 따라

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변화는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교통방송이 주말과 그 동안에는 사실 주말에만 우리가 통신원을 배치해서 주말에 교통정보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말프로를 강화하게 된 것은 적어도 교통방송하면 일반방송과 달리 교통프로를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외곽이나 교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방송이 특수방송으로서의 프로그램을 특성상 편성하기 위해서는 주말 토요일대행진이나 일요일대행진에 교통전문프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대행진, 일요일대행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朴謙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토요일대행진이나 일요일대행진이 가장 인기가 없고 토요일대행진이나 일요일대행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인지도가 낮아요.

○編成局長 金成吉;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MC에 대한 선호도가 뒤떨어진다는 얘기는.....

○朴謙洙 委員; 그러니까 문제라 이것이죠.

○編成局長 金成吉;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아직 6개월이 안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자에 말씀드리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MC 선호도에 대해서 청취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朴謙洙 委員; 내년도 예산 책정하는데 豫算課하고 협의하는 내용 지금 보고하실 수 있어요?

○編成局長 金成吉; 지금 당장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몇 분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예산.....

○朴謙洙 委員; 그 자료도 월요일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와 아울러서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느 분이든지 책임을 통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李始英 委員; 委員長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委員長 金永春; 李始英 委員님.

○李始英 委員; 李始英 委員입니다.

編成局長님, 지난 상임위에서도 토요·일요대행진 MC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미 많은 청취자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도 해주고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同僚委員인 朴謙洙 委員님께서도 이 말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근본적으로 교통방송국의 청취율이 기타 부서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바람에 전체적인 교통방송의 청취율이 낮아졌어요. 編成局長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청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교통방송을 들으면 무엇인가 희망과 꿈이 있었고 들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좀 한적한 날 특별히 토요일 오후나 듣는 것이나 일요대행진 같은 것은 많은 시청자들이 외곽지역을 나가면서 이 교통방송이 그간 모든 정보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교통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6개월이 안 됐으니까 6개월 될 때까지 두고보자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하루빨리 양질의 서비스, 우리 서울시민과 기타 교통방송국이 시청자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정말 서울시민에게 무엇인가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編成局長께서는 오늘 상임위가 끝나면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안은 내려주셔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을 6개월 동안 그냥 두고보자는 식은 우리 위원회에서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어떤 사심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서울시민의 의견입니다. 本部長님, 이것을 재고해 주시고 어떤 특정사안의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MC라든지 이런 선정과정에 있어서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이 토요 . 일요대행진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욕적으로 한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 編成局長이 답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가 향후 대책을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編成局長 金成吉; 명쾌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번 개편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말프로에 대해서는 MC들을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섭외도 하고 있고, 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部長·次長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李始英 委員님이나 朴謙洙 委員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李始英 委員님이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송하는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李始英 委員; 이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한 과정과 내용 자체는 좋다고 委員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이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릴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議會에서 내년도 예산에 좋은 MC, 좋은

프로그램을 하려니까 예산이 어렵다 그런 것은 우리 委員長님 이하 우리 交通委員會 모든 委員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갈 겁니다. 무엇인가 확일적으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실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編成局長 金成吉; 네, 알겠습니다.

○李始英 委員; 이상입니다.

○梁敬淑 委員; 교통방송 예산은 몇 과하고 의논하고 있습니까?

○編成局長 金成吉; 예산 1과입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면 지금 교통방송에서 나름대로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예산들은 이미 요구를 했습니까?

○編成局長 金成吉; 예산과에 올려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언제 올렸어요?

○編成局長 金成吉; 7월말입니다.

○梁敬淑 委員; 그런데 상례적으로 교통방송에서 올린 예산들이 企劃管理室 차원에서 몇 정도 삭감되거나 조정됩니까?

○編成局長 金成吉; 항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梁敬淑 委員; 이런 편성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교통방송 자체에서 예산을 올릴 때 현실적 판단으로 해서 올리면 특별히 豫算擔當官室에서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해서 삭감할 그러한 항목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업일 경우에는 이 사업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투자심사분석을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本部에서 이것이 현실적인 제작비라고 요구하는데 제작비가 너무 많다, 그렇지 않다는 실사해 보지 않고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그런 가능성은 그

렇게 많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방송본부에서 적정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編成局長 金成吉; 무슨 말씀이신지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하나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원고료 같은 경우는 작가협회하고 방송협회에 가입한 방송사들, MBC·KBS.

SBS하고 매년 연초에 합의가 되는 액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번도 그 액수에 쥐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A급이 6,000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B급이나 C급으로 해서 줬지 한번도 제대로 합의된 액수를 쥐 본 적이 없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니까 그 액수를 쥐 본 적이 없다는 게…….

○編成局長 金成吉; 요청을 했죠. 자료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면 비교표까지 해서 충분한 근거자료도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삭감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교통방송하고 상업방송하고 같냐, 교통방송은 조금만 쥐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다는 말이에요?

○編成局長 金成吉;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원고청탁하는 원고료가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編成局長 金成吉; 그렇습니다.

○梁敬淑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그쪽하고도 한번 현실적인 부분을, 예산안이 편성돼서 예산안이 확정돼버리면 교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편성하는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議會에 요청하

시고, 또 적극적으로 本部에서 어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그것을 재조정하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물론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교통방송에서 서울시 本廳하고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편성 하고 예산을 올릴 때, 협의할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심의할 때는 그냥 무사통과 되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지 편성할 때 적극성을 덜 띠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議會 차원에서 오히려 그 예산을 올려주니까 아까 總務局長이 답변한 대로, 그러니까 本廳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기분나쁜 것이거든요.

물론, 議會 차원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방송이 뭔가 이 관계를 잘못 풀고 있고 대응을 잘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本部長께서 참고하셔서 미리 대응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編成局長 金成吉;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李始英 委員; 交通放送本部에서 예산파트는 어느 부서에서 접촉합니까?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總務局에서 주무하고 있지만, 豫算課는 각 부서 공히 다 같이 들어가서 항목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李始英 委員; 내년도 예산에 상계해야 할 豫算課에 제출한 자료를 委員長 이하 우리 전체 委員들에게 주세요.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李始英 委員; 그리고 이 문제는 교통방송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거대한 서울시 執行部하고 서울시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알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교통방송에서는 사업별로 각 담당부서가 어필을 本廳에 따로따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방송내에 예산부서가 總務局 아닙니까. 그러면 總務局長이 나서서 그런 부분을 전담하고, 각 부서는 그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擔當局에서 本廳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되, 반영하는 것에 적절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판단을 잘 해서 융통성 있게 추진하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인사개편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交通放送本部가 더 강화되고 서울시로부터의 인식도 달라 집니다. 인사개편이 필요하다면 인사개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編成局長 金成吉; 네, 이상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李允中 委員님 답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것은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그러면 委員長으로서 보충해서 확인하거나 그럴 사항이 있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방금 예산요구와 관련해서 李始英 委員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좀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交通放送本部의 경우에는 本廳의 일종의 사업소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배치된 우리 本部長부터 그리고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本廳과 상대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열세적인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예산뿐만 아니라 업무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하는 데에도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우리 總務局長이 말하자면, 기자충원같은 문제도 일종의 그러한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보면서, 98년도 예산요구자료 제출을 하셨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신 경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議會에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2차·3차 보강해서 요구를 했던 것까지도 우리 交通委員會 委員 전부에게 제출해 주세요.

아마 그러한 방식으로 議會가 요구해서, 말하자면 예산요구를 하고 했던 것이 우리 交通委員會에 제출이 공식으로 된 것을 근거로 우리 交通委員이 해당 本廳 부서에 이것은 부당하다 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상향조정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될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交通放送本部가 전자에 몇 건에 걸쳐서 議會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오해도 불식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되리라고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송 전문직 충원계획과 관련해서 토익성적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선발하는데 중요기준으로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교통방송에서 프로듀서든 아나운서든 방송기술이든 해당직종에 따라서 토익의 성적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교통방송의 성격이나 특성상 얼마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말하자면 방송기술 전문직에 대해서 토익성적을 심사의 제1순위로 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교통분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토익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나운서같은 경우도 영어방송을 하지 않는 한 토익의 성적이 다른 성적이나 심사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항목별 가중치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중요성을 부여해야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설정이 된 다음에 토익성적이 몇 점 정도면 최소한 교통방송의 프로듀서나 아나운서로서 향후 교통방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갖춰야 될 자격이다 이런 것으로 참고를 하면 모릅니다만, 최우선의 가중치로서 이것을 적용했을 때는 사실 1년에 한두 번 쓸까말까한 영어성적을 가지고, 말하자면 평상시에 써야 될 음성이 라든가 다른 경력이라든가, 특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더 중요성을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자칫 사전 서류심사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누락이 된다고 한다면 인재를 발굴하는 방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미리 적어도 간과하지 말 것을 주의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그리고 아까 우리 梁敬淑 委員님이 상당히 세세하게 ARS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참고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언뜻 생각이 돼서

제시를 합니다. 참고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만장 정도 리플렛을 배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1331인가요, 이것이 다시 운영을 하게 될 때는 새롭게 팜플렛이나 리플렛을 준비를 해서 배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팜플렛이나 리플렛의 순서 별로 해서 주요 내용을 스티커 방식으로 이렇게 떼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팜플렛을 받았을 때 전체 내용을 들고 다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보통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제출을 해 주셨습시다만 이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여기 대표 ARS전화번호를 넣고 그 밑에 들어가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 이 부분에 한해서는 스티커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이것을 받아본 사람이 수첩에다 붙여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것은 글자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아마 연구를 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것도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다음에 배포를 하는 루트를 적어도 이러한 팜플렛을 배포하는 루트는 아까 교통통신원을 통해서 배포를 하셨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도 무슨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택시회사라든가 또는 그 외에 달리 배포를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관같은 데에 의뢰를 해서 배포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보도협조요청을 한다면 가장 가까운 우리 서울시청뉴스가 아마 매주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도 일정한 지면을 활용해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것을 실어주게 되면 필요한 분들이 이것을 보고 그 자리만 오려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 각 市의 각 부서 또는 각 기관, 자치구청에 마찬가지로 매주 또는 격월 또는 순간으로 발행되는 홍보매체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통관련 연구기관이라든가 또 시민운동 단체, 교통과 관련해서 아마 기관지나 이런 것들을 월간이 됐든 이렇게 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 데에도 이런 것들을 게재를 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아마 활용을 한다면 보다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보충해서 드리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交通放送本部 소관 당면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매 常任委員會 때마다 요구하는 자료는 공히 모든 위원들한테 똑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들도 많이 있었고 또한 대안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교통방송,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통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梁敬淑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네, 그렇게 하세요.

○梁敬淑 委員;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앞으로

의 계획들이 죽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中央政府나 서울시 本廳하고 협의사항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交通放送本部長 崔仁煥; 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春; 오늘 어떻든 회의 모두에 자료제출 문제로 인해서 우리 總務局長을 여러 가지로 질책을 많이 했고 또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本部長과 總務局長의 사과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것이 적어도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로서는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갖고 있는 정신적인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나온 질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關係公務員 여러분들도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보다 더 우리 交通委員會 위원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交通放送本部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우리 交通委員會 위원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52分 散會)

---

○出席委員

金永春 朴謙洙 李智文 金在仁

金亨吉 金喜甲 白聖德 梁敬淑

李始英 李允中 鄭炳仁 趙上男

洪性龍 池昌洙 李聲九

○專門委員

金南中

○出席公務員

交通放送本部

本部長 崔仁煥

總務局長 金鍊喆

編成局長 金成吉